

박윤국 포천시시장 아름다운가게 명예점장

포천시 공무원 기증품 600여점 포천점 기탁



포천시는 4월21일 기부와 나눔 운동의 확산이라는 가치 아래 나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에서 물품 기증과 봉사활동을 가졌다.

지난 2월 23일 문을 연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에는 4월 1일부터 20일간 포천시청 직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의류와 가전제품 등 600여점이 기탁됐다.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은 1일 명예점장으로 참석하여 물품을 직접 판매하고 매장정리를 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에 개점한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작지만 큰 일,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으며, 아름다운가게의 정신과 취지에 공감하여 지난 1일부터 직원들과 함께 기증 물품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 행사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관심과 애정으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정성, 큰 사랑을 실천하는 기부와 나눔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크게 확산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승란 기자 forme65@paran.com

목회단상

모자이크의 인생



김창성
내촌교회 목사

세계를 여행하다보면 다양한 문화와 예술품들을 만나게 된다. 인종과 종교 전통과 문화는 그 민족의 역사의 자람이면서 증거이기도 하다.

로마를 방문 했을 때 엄청난 거 큰 벽화를 보았다. 그것은 모자이크 벽화였다. 여러 색깔의 타일로 구성된 것이다. 가까이서 보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룩거리기만 하고 전체 그림을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감상하면 조화로운 한 폭의 미술품이 눈에 들어온다. 아름답고 웅장한 그림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인생은 모자이크 벽화와 같다. 슬픈 일, 기쁜 일, 눈물과 웃음, 실패와 성공, 아픔과 건강, 좌절과 절망, 희망과 승리 등이

인생의 모자이크가 얼켜서 한 인생의 삶을 꾸며간다. 한 계통의 색깔만 가지고는 모자이크 미술품이 만들어질 수 없듯이 인생 모자이크도 여러 색깔이 합쳐서 조화(調和)의미를 발산하게 된다.

여기에 성숙한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다. 로마서 8장2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문외) 031-532-2489

2007 포천시 장애인 어울마당 개최

관내 장애인 및 가족, 시민 등 1200여명 참석

포천시에서는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장애인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하여 관내 장애인 및 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봉사단체,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자립의지를 북돋았으며, 아울러 모

범장애인인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또한 기념행사 전·후로 하여 장애인 어울림 행사인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을 펼치고 사물놀이, 수화 공연, 장애인들 재즈댄스 등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선교류를 위한 만남의 축제의 장을 열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의욕 고취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을 크게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하승란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에서는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장애인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관인면 - 노원구 새마을부녀회 자매결연

관내 장애인 및 가족, 시민 등 1200여명 참석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수상

포천시 윤석희 공보관광담당관

포천시 윤석희 공보관광담당관이 경기방송이 제정한 '제3회 자랑스런 경기인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경기인대상'은 행정·기술직 공무원, 소방·경찰 공무원 등 10개 부문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자들에게 주는 상으로서 포천시 윤석희 담당관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김병태씨와 행정

직 공무원 부문에서 공동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방송 관계자는 "보다 특화시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냈거나,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이 돋보인 분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희 담당관은 2005년 2월에 공보관광담당관으로 첫 부임해 현재까



지 10여개 대형 문화예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포천시를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공을 받았다.

시상식은 4월27일 경기방송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각 5백만원의 상금과 상패,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는 1계급 특진 등 인사특전이 주어진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경찰과 음주자의 전쟁

보통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을 말한다. 과거보다 살기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다고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인사말을 하면 으레히 모두 죽었다고 엄살들이다.

그러나 과거 6·25는 고사하고 가깝게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80년대만 해도 우리들은 공장에 취직하는 것조차 힘들고 사실 변변찮게 보통 살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도 이제는 웬만한 사람치고 자동차 없는 사람 드물고 과거처럼 한집에 3가구 5가구 셋방살이 하는 가정이 드물다.

그때도 불만은 더 많고 세상 불평은 그때보다 몇 배를 많다. 어쩌면 일인가?

20년전 만해도 대학은 그저 동네에서 형편이 괜찮고 능력이 있는 집안 자제들이 가는 것이고 패나 능력이 있으면 땅 팔아 서울에 대학 보내던 시절이 불과 몇 년이 되던가.

그러나 지금 과소출에 술에 만취가 되어 행패와 억지를 부리고, 유흥주점, 노래방, 일박식당에서 술에 취해 폭행, 시비, 추행 등 밤새 경찰관들과 씨름을 하는 세대는 모두 40~50대들이 주류

를 이룬다.

오히려 20대들은 세상 사는 매너는 알고 있다. 교육의 탓이라 할까 미투 생각하고 싶다. 막무가내 초저녁부터 술에 취해 기본적인 상식이하로 주장을 하고 주변에 설득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세대들이다.

갖은 욕설은 말 할 것도 없이 거의 도전적으로 경찰관들을 밤새 괴롭힌다.

새로운 통신문화의 덕으로 각 기관에 핸드폰으로 억지 주장을 때들어 대고 과거에 흔히 들었던 경찰이 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규제와 통제를 하는 업무가 한계를 부딪치게 되고 도전적으로 밤새 부딪치고 주취자들에게 경찰관들은 시달려 혼이 빠질 지경이다.

밤새 경찰관들이 앞 단추가 떨어지고 바지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당하고 주취자가 뺨을 침까지 맞아가고, 그 술한 욕설은

만성이 되어 가면 집까지 모셔다 주는 실정이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했던가. 10만 경찰 중 1명이 실수를 해도 무참하게 매도당하는 조직에 한없이 한없이 슬퍼하고 매진을 해도 광란적인 주취자가 시간별로 저물적으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법의 집행을 누가 어떻게 해야 공권을 아쉬워할까?

아쉬움을 남긴다. 사회는 날로 풍족화 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진정 경찰관 1명이 아쉬운 이때 대한민국 경찰의 약 3분의 1은 주취자들이 다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포천의 소음원은 유흥업소가 포천에서 가장 많이 영업 중이며 노래방 일반음식점, 여관 및 공장, 외국인까지 경찰력이 부족하여 경찰관 7명이 한번에 신고를 1~2가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가 많다.

그때도 유흥업소 및 음식점에서 신고건수가 60%이상이다. 모두 주취자 행패들이고 모두 40~50대들이다.

지구대 동행은 해도 답이 없고 무조건 경찰관에게 시비한다. 입

윤석희
포천행정부서
소속지구대 3행정



에 담지 못할 욕설과 지구대 집기 등을 부수고 술이 깼 때까지 지구대 3~4명이 시비를 하면 경찰관들이 업무가 마비 상태가 될 정도이다.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고 노력해도 연락처 및 신분증도 없이 밤새 행패를 부린다. 이제는 법해야 한다. 내용을 읽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한국의 술 문화는 점차 계기가 되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병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진정 경찰 서비스를 받아야 될 피해자 등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제·사회·문화·종교 등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계도해야 할 문화적 세대대 대상으로 올바른 음주문화 개선 대책이 언론으로 시작되어 관심을 받게 해야 가정과 국가가 살고 사회 음주문화를 국민적 관심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포천신문에 간곡히 소원하고 있다.

연락처 : 011-603-6936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③ 북한의 행정구역

최근 북한의 행정 구역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개편



서희석
대중지역연구실대표이사

북한의 행정 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에 6도, 10시, 89군이었으나, 1952년 12월 행정 체계와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 시·군(구), 읍·면, 리(동)의 4단계 행정 구역 체계 중 면을 폐지하여 도(특별시, 직할시), 시·군(구역, 구, 지구), 읍·리(읍, 동, 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계로 개편하고 군 지역을 재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 단위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즉, 1946년 9월 평양시가 평안남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개편되면서 직할시로 된 이후 50여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거쳐 2005년 1월 현재 평양직할시, 남포를 비롯한 3개의 특급시, 9도, 24시, 26구역, 148군,

3특구, 2구, 3지구, 148군, 3,395리, 881동, 235노동자구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 이중 '노동자구'는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장, 공장, 탄광, 여천 등 노동자 밀집 지역에 설치한 리급 행정 구역이다.

북한은 1,000여 곳의 지명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현재의 지명 중에는 8·15광복 당시의 지명과 다른 곳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은덕군(중진의 경흥군 지역)은 1977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덕을 기린다는 뜻으로 개칭, 김형직군(후창군을 1988년에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이름을 따서 개칭) 등이 있다. 종래의 행정 구역 개편이 중앙 집권 체

제를 강화하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및 가계 우상화를 위한 지방 개칭과 한국의 행정 구역수를 의식한 구역수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행정 구역 개편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 구역 현황을 크게 나누어 보면, 평양특별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1949년에 평북의 강계·자성·후청·위원·조선·희천군과 성남의 장진군의 동문면을 병합하여 신설), 량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황해도를 분리),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1946년에 경기도 연천, 함남의 원산시, 문천군, 안변군을 이속시켜 강원도의 구역을 확장시켰다)로 나누어진다.